DAY 41 · 4부 조심할 것

통째로 시키면 뭐가 남을까 — 숙제와 AI, 어디까지

하루 5분 AI 수업 · 2026년 10월 17일

AI한테 맡길 건 맡긴 자리지 숙제 전체가 아니야. 끝나고 내 말로 설명되면, 그건 네가 한 거야.

한 줄로 말하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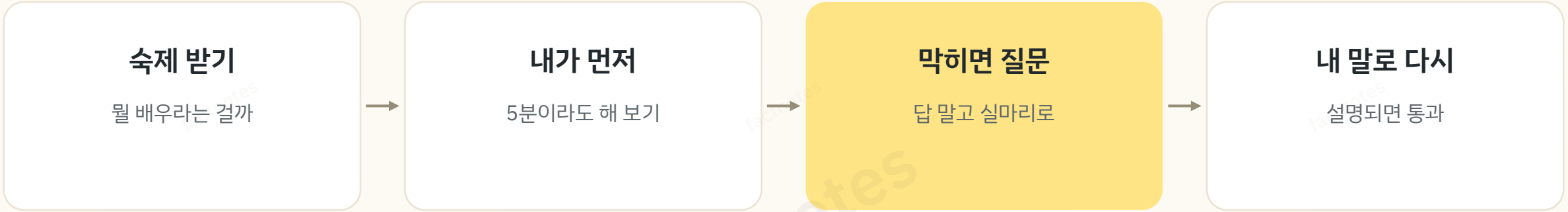
1. 기준은 긴 규칙집이 아니라 한 문장이야. **다 끝났을 때 내 머리에 뭔가 남았는가**.

2. **통째로 시키면 결과물만 남고 나는 그 내용을 설명하지 못해**. 그래서 발표 자리나 시험지 앞에서 바로 티가 나.

3. 반대로 **막힌 데만 물어보고 내가 다시 쓰면 결과물도 남고 실력도 남아**. 같은 도구인데 어느 자리에서 쓰느냐가 다른 거야.

그림 한 장으로

숙제 앞에서 밟는 네 걸음



세 번째 걸음이 갈림길이야. '답 알려 줘' 대신 '어디서 막혔는지 짚어 줘'로 물으면 배움이 남아.

핵심: 먼저 5분, 막히면 실마리, 마지막은 내 말로

실험 · 전후 비교

통째로 시키기 vs 같이 하기

독서감상문

전

책 제목만 주고 감상문을 통째로 받아서 냈어. 읽는 데 3분, 내는 데 1분 걸렸지.

후

책은 내가 읽고, 감상이 잘 안 잡혀서 '이 장면을 설명하는 방법 세 가지'만 물어봤어. 고른 건 내가 골…

시간은 열 배 들었지만 그 책 이야기를 내 말로 할 수 있게 됐어. 이게 남은 거야.

수학 문제

전

모르는 문제 열 개를 통째로 넣고 풀이를 받아 옮겨 적었어. 숙제 칸은 다 찼지.

후

먼저 5분씩 붙잡아 보고, 막힌 줄만 사진 찍어서 '여기서 왜 이렇게 넘어가?'라고 물었어.

막힌 자리를 내가 알고 물었으니 그 자리만 정확히 메워져. 전부는 아니어도 대부분 다시…

발표 자료

전

주제만 던지고 슬라이드 열 장을 통째로 받았어. 넘겨 보니 멋있긴 한데 처음 보는 낱말이 많아.

후

할 말을 내가 먼저 세 줄로 적고, 그걸 슬라이드로 나누는 것만 도움받았어. 숫자는 원래 자료에서 직접 확…

뼈대가 내 것이라 어떤 질문이 와도 내 말로 이어 갈 수 있어. 밝힐 것도 한 줄이면 끝…

같은 숙제를 두 가지 방식으로 했다고 생각해 봐. 왼쪽 오른쪽을 번갈아 누르면서 '끝나고 뭐가 남았나'를 비교해 보는 실험이 …

웹 수업에서 직접 해 볼 수 있어요 · next-token.net/learn/day-41/

확인해보기

세 문제만 풀어 보자

Q1 숙제에 AI를 써도 되는지 가르는 기준은?

① 걸리지 않느냐
② 끝났을 때 내게 뭔가 남았느냐
③ 시간이 얼마나 줄었느냐
④ 글자 수가 채워졌느냐

Q2 수학 숙제를 통째로 맡겼을 때 가장 큰 문제는?

① 숙제 칸이 안 채워진다
② 글씨가 예뻐진다
③ 같은 유형이 또 나오면 다시 막힌다
④ 시간이 더 걸린다

Q3 막혔을 때 더 나은 질문은?

① 답만 알려 줘
② 제출해 줘
③ 전부 다시 써 줘
④ 어디서 막혔는지 짚어 줘

왜 그런지까지 알고 가자

Q1

② 규칙집을 외울 필요 없어. 다 하고 나서 그 내용을 내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남은 거고, 못 하면 안 남은 거야.

Q2

③ 칸은 채워지지만 막힌 자리는 그대로 남아. 손은 움직였는데 머리는 안 움직였으니까.

Q3

④ 실마리를 달라고 물으면 그 자리만 정확히 메워져. 이게 결과물과 실력을 같이 남기는 방법이야.

AI한테 맡길 건 막힌 자리지 숙제 전체가 아니야. 끝나고 내 말로 설명되면, 그건 네가 한 거야.



내일은 가짜뉴스 — 이 소식을 믿어도 될지, 세 가지만 보고 가려내는 법.